일본의 중국근현대사 관련 자료의 소장에 대하여
-지식의 축적과 전승을 중심으로

손안석(가나가와대학)

사진 자료 사진 자료

중국 일본 한국의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阿片戦争이후-1945년경에 이르는 과정)에 관련된 많은 역사 자료 즉 지식의 축적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중국의 근현대사 연구 또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라는 정치 동란을 극복한 후에 다시 새롭게 재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연구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구미권(欧米圏)을 중심으로 한 학술 연구의 우선 순위 독점이라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 이후의 글로벌리즘이라는 변화 앞에서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연구는 새로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보고는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풍부한 역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의 상황을,

1. 정부의 공식 자료관: 외무성 외교 사료관(外務省外交史料館), 방위청 방위자료실(防衛庁 防衛資料室)
2. 신문 미디어에 축적된 지식: 日本放送協会(ＮＨＫ), 東京大学明治新聞資料室, 각종 신문 특집호(特輯号)ー写真週報, 支那事変画報, 大阪朝日新聞富士倉庫資料
3. 각종 협회와 민간에 축적된 자료: 회사의 100년사 자료(社史), 그림엽서(絵葉書), 기념 책자(紀念冊), 문학, 미술 등 3개의 부문에 나누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연구는 지금까지 상해 근현대도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중국의 대련(大連)에 관한 도시연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로 각종 회사의 100년사 관련 책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 100년사 자료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서 오노다세멘트(小野田セメント), 닛신세이유(日清製油)회사와 대련(大連)의 도시발전에 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정부의 공문서관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관은 외무성

외교사료관(外務省外交史料館)과 방위청 방위연구소(防衛庁 防衛研究所)이다. 이곳에서 소장하는 자료는 중국, 한국, 대만의 외교와 국내정치, 행정에 관련된 공식서류로서 이미 많은 연구자가 이들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라는 웹사이트가 공개되어 있어서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자료를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최근에 저는 상해의 항만과 항구관리에 관한 연구

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석유 연료에 관한 문제가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상해에는 많은 공장이 설치되기 시작되고 근대적인 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석유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다.

당시의 중국의 석유공급은 미국의 스탠다드(Standard Oil Company)공사와 영국의 아시아 석유(Asiatic Petroleum)가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석유 공사는 상해의 외국 영사단(領事団), 조계(租界)의 공부국(工部局) 측에 벤젠(Benzine)이라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새롭게 설치하려고 한다는 요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국의 요구에 대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미국 스탠다드 회사가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벤젠 창고 설치를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포동(浦東)의 벤젠창고 근처에 미쯔이 물산(三井物産)의 석탄 저장고가 있다는 이유로 벤젠창고의 설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지만 북경 공사단의 조정을 거쳐 구미열강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설치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상세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불명한 부분이 많다. 중국 측의 자료와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공동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자료 사진 자료

1945년 이전의 일본 육해군(陸海軍)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방위청(防衛庁)사료는 통상은 전투와 전사(戦史)편찬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해에 주둔한 해군 육전대(海軍陸戦隊)에 관련된 자료 중에는 상해 도시연구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자료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축적된 전전(戦前)의 아시아 관련 자료이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학교와 교육제도가 보급되면서 신문 잡지의 발행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 일반적으로는 청일전쟁(清日戦争)이후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는데 상해를 예로 들면 청일전쟁 이전인 1890년에 이미 일본어 신문 上海新報가 상해에서 발행되었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자료 사진 자료

중국의 신문으로는 신보(申報)가 유명하고, 영문 신문으로는 North China Herald이 유명하지만, 상해신보(上海新報)를 이용하면 당시의 일본인의 상해관(上海観), 혹은 중국관(中国観)을 엿볼 수 있다. 이들 명치시대의 신문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동경대학교의 명치신문잡지 자료실이다(東京大学明治新聞雑誌資料室). 상해에서 발행된 초기의 상해 신보에 관해서는 저도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신문을 이용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점은 서양의 정보 네트워크에서 세관(海関)과 선교사(宣教師)가 중요시 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미쯔이(三井), 미쯔비시(三菱)등 의 상사(商社)와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세기 이후로 들어오면 오오사카 마이니치(大阪毎日新聞) 도우쿄 니치니치(東京日日新聞) 신문 등이 앞 다투어 중국에 관련된 특별 기사를 소개하게 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각종 마찰과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특파원이 파견되고 신문의 호외가 발행된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모아지면서 매년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면서 중국연감(中国年鑑)이 출판된다. 지금에 비유한

다면 중국에 관한 검색이 늘고 새로운 Wikipedia가 갱신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났던 사례가 상해사변, 만주사변, 중일전쟁에 관한 각종 특집기사라고 할 수 있다. 상해사변특집호(特輯号), 만주사변특집호(特輯号) 각종 특별화보(画報)가 간행되고 대량의 정보가 소비되면서 중국을 점령하는 일본 황군(皇軍)의 연전연승에 일본국민은 환호하게 된다. 이러한 매스미디아가 시대의 여론을 조작하는 시대였던 것이다.

사진 자료 사진 자료

매스컴에 관련된 자료로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라디오 방송에 관한 자료이다. 일본방송협회(日本放送協会)라고 하면 많은 분이 생소하게 느끼겠습니만, NHK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NHK야 말로 식민지 대만과 조선 반도, 만주국, 중국 전체의 제국일본의 라디오 방송을 총괄한 메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중일전쟁에서 점령하는 중국의 각 도시에서 용의주도한 메스미디어 정책을 전개하는 데 그 중요한 부분이 신문과 잡지의 발행, 그리고 라디오 방송의 개시였다.
이들 일본 방송협회에 관련된 자료가 우정성(郵政省)과 방송문화연구소(放送文化研究所)에 보관되어 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각종 협회와 기관 회사(会社)가 발행한 100년사 자료, 그리로 개인이 남긴 자료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각 도시에 일본의 거류민이 증가하면서 각종 여행안내서가 발행되며, 방직공장 (紡績工場) 등 당시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 확대되면서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가 설치되게 된다. 중국에 관련된 대량의 지리(地理) 정보와 경제 정보가 지식으로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공장이 건설되고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회사는 각종 10년사, 20년사, 30년사 등의 회사 기념 간행물을 간행한다. 최근에 저는 대련의 도시발전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회사 100년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련의 도시발전과 오노다 세멘트(小野田セメント)제조회사 일청제유(日清製油)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사진 자료 사진 자료

이러한 자료 이외에 중일전쟁에 참가한 군대조직이 발행한 기념책자, 민간에 서 발행된 그림엽서 등 도 중요한 자료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진 자료 사진 자료

이상, 시간 관계상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에 관련된 지식이 어떠한 부분에서 축적이 되었는지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 관련 자료의 전부를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 20세기 이후 1900년부터 1950까지 축적된 일본의 지식과 정보를 정확히 이용하는 것은 역사 연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현재의 살아있는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의 축적을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피라미드의 기초를 이루는 저변이 넓을수록 높이가 더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